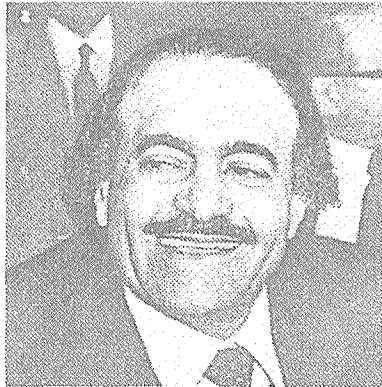


사우디석유상에 정식취임한 히삼·나제르

지난 10월 하순 야마니 前石油相의 전격 경질후 代行職을 맡아오던 나제르 사우디石油相대행이 드디어 「代行」의 딱지를 벗고, 정식으로 사우디 石油相에 취임했다. 지난 12월 24일밤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통신은 파드國王의 칙령에 따라 히삼·나제르 石油相대행이 정식으로 石油相에 취임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하순 사우디石油相에 정식취임한 나제르. OPEC의 리더로서 그의 一舉手一投足以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55세인 나제르石油相은 2년 年長인 야마니 前石油相과 마찬가지로 사우디의 美國유학과 제1세대로 사우디를 대표하는 테크노크라트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유능한 관료라는 評을 받고 있으나, 『國王이나 유력한 왕족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대세에 거스르지 않고, 자기의견이나 주장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소리도 듣고 있다. 목청높여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대신, 우회적인 접근방식을 중시한다.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수완을 갖고 있다. 지난 12월 제네바에서 열린 OPEC(石油輸出國機構) 총회에서도 감산폭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그의 능란한 교섭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또 합리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시간감각이 무딘 아랍세계에서는 드물게 시간관념이 뛰어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12월 OPEC 총회에 처음 나왔을 때, 『회의의 회수도 줄이고 시간도 단축하자』고 제안해 지금까지 완만한 회의분위기에 익숙해 있던 각국대표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부유한 실업가 집안에 태어나 이집트의 名門사립고등학교에 유학했고, 다시 美國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대학(로스앤젤리스)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다. 젊은 시절에는 축구의 스트라이커로 이름을 날린 스포츠맨이었다.

1962년부터 야마니石油相 밑에서 石油鑛物資源省차관을 지냈고, 1968년부터 中央企劃廳長官, 75년부터 企劃相으로 자리를 옮겨 경제사회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지휘했다. 한편 파드國王이 의장인 최고석유평의회(SPC)의 멤버로서 기획상시절에도 사우디의 석유정책에 깊

이 관여해 왔다. 야마니石油相의 해임후 나제르石油相대행은 企劃省과 석유광물자원성에 등청했는데, 석유광물자원성에는 週2日정도 등청해 장기간 石油相의 직책을 겸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이번에 정식으로 石油相에 취임함으로써 앞으로는 석유관계업무에 전념하게 됐다.

야마니石油相이 해임되었을 때 그 후임에는 사우드外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야마니 자신도 사우드外相을 후임자로 천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에서

는 유력한 왕족이 임명되는 外相은 국방장, 內相과 함께 정부내에서 서열이 높는데 비해 石油相等 경제관료는 민간인의 직책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사우드外相을 石油相에 기용할 경우, 격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나제르의 石油相 정식취임은 경제관료의 수평이동으로서 무난한 인사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번 나제르石油相의 정식취임은 지난 12월 제네바에서 열린 OPEC 총회에서의 나제르의 활약이 파드國王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일부 석유전문가는 『OPEC가 새로운 감산협정에 합의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결국 그는 협조감산의 강화체제구축에 성공했다. 그런 의미에서 제네바 OPEC 총회는 그의 수완을 테스트한 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제르石油相에 대한 파드國王의 신임은 OPEC 총회 개최중 사우디의 동향에 잘 나타났다. 즉 과거 야마니시대처럼 앞질러서 총회에 대해 최고석유평의회(의장 파드國王)가 여러차례 성명을 발표하는 일과 같은 것은 일체 없었다. 사우디의 석유정책은 OPEC 총회내에서는 모두 나제르의 입을 통해 언급되었다. 그만큼 사우디 정부내에서 뿐만 아니라, OPEC내에서의 그의 지도적 지위가 거의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OPEC 최대산유국 사우디의 石油相으로서 세계석유전략을 펼쳐갈 그의 一舉手一投足以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金乾洽·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